

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	보도자료	2026. 6. 30.(화) 배포 즉시 보도 가능		
경제활력국	고용센터장		양태녕	☎ 710-4440
	고용지원팀장		오명자	☎ 710-4591

제조·농어업·외식업 사업주 7월 6일부터 외국인력 신청

- 제주도, 7월 20일까지 올해 3회차 E-9 고용허가 접수 -
- 7일간 내국인 구인 노력 거쳐 고용센터·고용24서 신청 가능 -

□ 제조업과 농어업, 외식업 등 일손이 부족한 제주지역 사업주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새로 배정받을 수 있게 된다. 제주특별자치도는 7월 6일부터 20일까지 올해 세 번째 신규 외국인력(E-9·비전문취업)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.

○ 신청 대상은 제조업과 농축산업, 어업, 건설업, 음식점업, 호텔업 등 인력 부족을 겪는 업종의 사업주다.

○ 제주도는 관광산업과 맞물린 외식업계의 인력난을 덜기 위해 2024년부터 음식점업을 고용허가제 적용 업종에 포함해 운영하고 있다.

○ 신청에 앞서 사업주는 7일간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쳐야 한다. 이후 제주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 누리집(www.work24.go.kr)에서 신청하면 된다.

□ 배정은 점수제로 이뤄진다. 고용허가 요건을 갖춘 사업장을 가점 8개 항목과 감점 8개 항목으로 종합 평가해 점수가 높은 곳부터 우선 배정하고, 점수가 낮은 사업장은 대기 순번을 받는다.

□ 신청 결과는 8월 4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내되며 고용24

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.

○ 고용허가 발급 대상 사업주는 8월 5일부터 19일까지 사업장 별 지정 일정에 따라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 누리집에서 17개 송출국 가운데 원하는 나라의 외국인력을 선택해 고용허가서를 받으면 된다.

□ 제주도는 올해 1·2회차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를 통해 414개 사업장에 667명을 배정하며 지역 기업과 농어가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해왔다.

○ 신청 관련 문의는 제주고용센터 외국인 고용허가 담당자 (710-4408~10)로 하면 된다.

□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“외국인 고용허가제는 관광·서비스업과 중소기업, 농·어가의 만성적인 구인난을 더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”며 “현장의 인력 수요에 적극 대응해 지역 산업의 경쟁력과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”고 말했다.